

번호 II-11

제 목	국 문	지역사회 뇌졸중 환자의 의료이용양상			
	영 문	The pattern of medical utilization of stroke patients in the community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천병렬 ¹ , 최보율 ² , 임부돌 ³ , 오희숙 ¹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¹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² , 청송군보건의료원 ³			
	영 문	Byung-Yeol Chun ¹ , Bo-Youl Choi*, Pu-Tol Lim ³ , Hee-Sook Oh ¹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School of Medicine, KPNU ¹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² , Chung Song Health Center and County Hospital ³			
분 야	보건관리 () 역 학 (○) 환 경 ()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 공 의 ()	발 표 형 식	구 연 () 포스터(○)
진행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뇌졸중 환자의 의료이용양상을 조사한다.</p> <p>2. 연구 방법</p> <p>1999년 3월부터 5월까지 훈련된 조사요원들을 통하여 경기도 양평과 경상북도 청송군의 주민들 중 뇌졸중이라고 판단되는 환자들을 보건진료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경상북도 안동시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물리치료실을 방문한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사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청송군은 유병률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 조사기간 중에 사망한 뇌졸중 환자도 조사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뇌졸중 환자의 일반적 특성, 증상 발생 시 최초로 방문한 의료기관, 이환기간 동안 방문한 의료기관의 종류와 수, 진단방법과 치료방법 등이었다.</p> <p>3. 연구 결과</p> <p>연구기간동안 발견된 뇌졸중환자는 243명(안동시 78, 청송군 64, 양평군 101)이었다. 청송군 뇌졸중 유병률은 남자가 10만명 당 222, 여자가 149였고, 1997년 한국인구를 표준인구로 한 연령표준화률은 남자가 100, 여자가 82이었다.</p>					

뇌졸중의 치료를 위해 한번이라도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은 95.9%이었다. 타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68.8%이었다. 증상발현 후 최초로 이용한 의료기관은 양방이 49.8%, 한방은 42.3%이었다. 뇌졸중 환자가 이환 기간 동안 이용한 의료기관은 양방과 한방을 모두 이용한 비율이 42.6%, 양방만을 이용한 것은 34.1%, 한방만을 이용한 것은 23.3%이었다.

전체 뇌졸중 환자 243명 중 뇌촬영술 결과가 뇌경색과 뇌출혈로 판명된 162명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뇌출혈환자와 뇌경색환자 모두 최초로 양방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였지만(각각 63.8%, 51.1%), 뇌경색환자는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44.5%로 뇌출혈환자의 33.3%에 비해 높아, 뇌출혈과 뇌경색환자의 최초 의료기관 이용양상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이환기간동안 이용한 의료기관은 양방과 한방을 모두 이용한 비율이 각각 49.3%, 43.8%로 가장 높았지만, 뇌출혈 환자는 양방만을 이용하는 비율이 39.4%로 한방만을 이용하는 비율인 11.3%보다 더 높았으나, 뇌경색 환자는 29.2%, 27.0%로 비슷하였다.

4. 고찰

청송군의 뇌졸중 유병률은 남자가 10만명 당 222, 여자가 149명이었고, 연령표준화율은 남자가 100, 여자가 82이었다. 국내에서 보고된 뇌졸중 유병률은 연령표준화율이 남자가 10만명 당 230, 여자가 160이었다. 지역사회 중심의 연구는 아니지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에서의 뇌졸중 발생률은 10만명 당 537, 여자가 444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뇌졸중 환자의 1년 치명률은 68%로 상당히 높았다. 이와같이 높은 치명률은 발생률보다 유병률이 낮은 중요한 이유로 생각된다.

뇌졸중의 치료를 위해 한번이라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95.9%로 지역사회 뇌졸중환자 중 4.1%는 뇌졸중이 발생하더라도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최초로 이용한 의료기관은 양방이 49.8%, 한방은 42.3%로 약 7.9%정도가 증상발생시 최초에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발병 후 조사시점까지 사망한 환자들이 모두 빠진 결과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치는 아니므로 향후 반드시 지역사회 중심의 뇌졸중 발생률 조사를 수행하여 이런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